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칠레

Republic of Chile

2024년 2월 28일 | 선임조사역(G2) 이진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국가개황

칠레
Republic of Chile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756천 ㎢	1,996백만명 (2023e)	대통령제	경제실리외교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3,444억 달러 (2023e)	17,254달러 (2023e)	Peso(Ps)	840.07 (2023년 평균)

- 남미 대륙 서부 남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칠레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인접하고 있음. 환태평양 조산대에 접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편임.
- 칠레는 구리(세계 1위), 리튬(세계 1위), 레늄(세계 1위), 몰리브덴(세계 4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함. 특히 구리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의 생산 및 수출이 GDP의 약 10% 및 총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10월 대규모 소요사태 이후 2022년 3월 복지정책 확대, 불평등·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좌파연합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신헌법 제정 이슈가 1·2차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으며, 높은 물가상승률과 범죄율 증가 등으로 약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두 번째 OECD 회원국으로, 2012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결성하여 중남미 신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6. 12 수교 (북한과는 1972.6.1 수교, 1973.9.19 단교 후 1992.9.25 재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78), 사증면제협정(80), 항공협정(80), 경제기술협력협정(83), 문화협정(84), 투자증진및보호협정(99), 이중과세방지협약(03), 자유무역협정(04), 원자력평화이용협력협정(06),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08),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6), 사회보장협정('17), 방위산업군수지원협정('17), 국방협력 협정('1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 출	1,574,182	1,510,397	1,247,198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판
수 입	4,859,460	6,801,722	7,599,664	정밀화학원료, 동, 목재, 수산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03건, 953,73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e
경 제 성 장 률	0.7	-6.1	11.7	2.4	-0.5
소비자물가상승률	2.2	3.0	4.5	11.6	7.8
재정수지/GDP	-2.7	-7.1	-7.5	1.4	-1.6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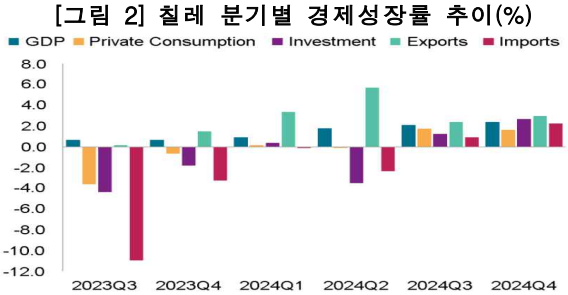
2023년 높은 물가상승률,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 칠레 경제는 광물(구리, 리튬 등)과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특히 광업(구리, 리튬)은 GDP의 17.5%('22년), 전체 수출의 53.5%를 차지하여,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임.
- 2014년 이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과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2%대로 둔화되었고, 2018년 시장 친화적인 피네라 2기 정부 출범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7%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2019년에는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7%로 급격히 둔화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국가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6.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원자재 수출 활성화 등으로 11.7%의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음.
- 그러나 2022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억제코자 칠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경제가 위축되었으며, 2022년 3월부터 사회주의 성향의 새 정부가 집권하면서 진보적인 가치를 담은 신헌법 제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2.4%의 경제성장에 그쳤음.
- 2023년에도 높은 물가상승률 부담, 정책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0.5%의 저조한 경제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다만,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 안정에 따른 칠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정부의 신헌법제정 불확실성 해소(2023년 12월), 민간소비의 개선 등에 힘입어 1.8%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EIU).

[그림 1] 칠레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Moody's

[그림 2] 칠레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S&P Global(구, IHS Markit)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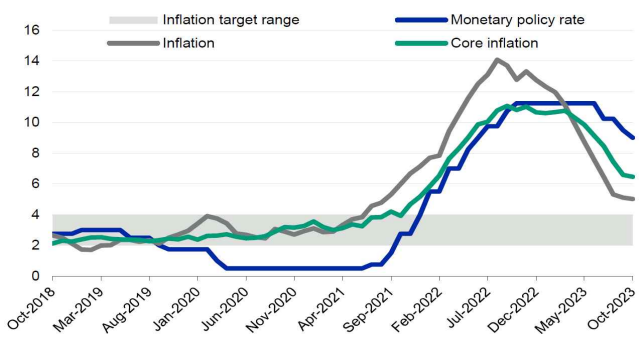
중앙은행, 물가상승률 압력 완화와 함께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11.25% → 7.25%)

- 칠레 중앙은행은 3±1%의 소비자물가 목표 설정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년 간 목표수준 이하의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2016~20년 평균 2.7%)을 유지해왔음.
- 칠레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코자 기준금리를 0.5%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후 지속되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총 3.5%p를 인상하여 4.0%로 상향 조정하였음.
-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이 가속화되어 2022년 물가상승률이 11.6%에 달하는 등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칠레 중앙은행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차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여 2023년 6월까지 기준금리 11.25%를 유지하였음.
- 한편, 2023년 물가상승률 완화 전망에 따라 칠레 중앙은행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금리 인하를 5차례 단행하여 고점(11.25%) 대비 4% 낮은 기준금리 7.25%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중에는 미국 달러와의 금리 차, 지정학적 긴장감 해소 추이 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전망치 변화에 따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임.

페소화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광물의 수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강세 전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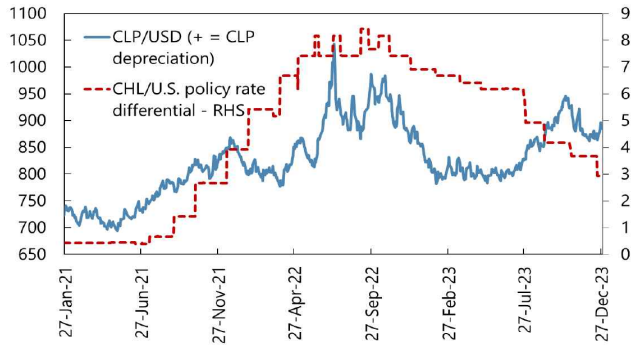
- 2020~21년 중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달러와의 기준금리 차 축소 등 다양한 경기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컸으며, 2022년 말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구리 가격이 급락하면서 환율이 사상 최대치인 1,049페소까지 급등하기도 하였음.
- EIU는 페소화가 2024년에는 통화정책 완화로 약세를 이어갈 것이나, 2025~28년 중 주요 광물(구리, 리튬 등)의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페소화가 강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 칠레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Moody's

[그림 4] 페소화 환율 및 미국 달러와의 기준금리 차



자료: IMF

국내경제

중기적으로 소폭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 예상

-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관세·법인세 등 세수 감소,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 –7.1%, 2021년 -7.5%에 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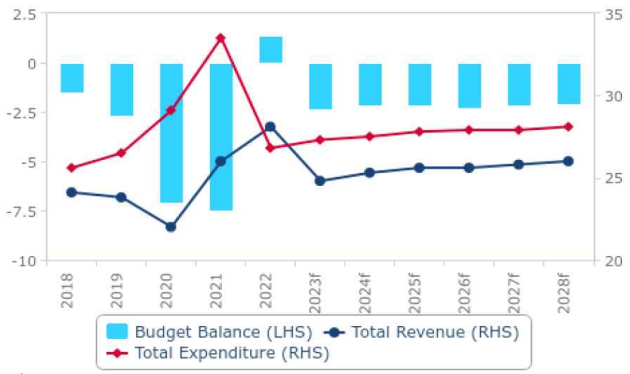
  - 한편,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12월 및 2021년 4월 총 3회에 걸쳐 연금의 10%를 인출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재정부담 가중, 연금 고갈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IMF에 따르면 2020년 두 번에 걸친 연금 중도인출에 각각 10백만 명, 7백만 명이 인출을 신청하였고 연금 납입자의 25%인 약 3백만 명이 연금을 소진하였으며, 총 363억 달러가 인출된 것으로 추정됨(IMF, Bloomberg).

- 2022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수 증가, 구리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세입 증가 및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규모 축소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되었으나, 2023년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시행), 사회안전망 투자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해 재정수지는 GDP의 –1.6%로 다시 적자 전환함.

- 2024년에도 헬스케어, 주택, 교육, 사회안전에 대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 구리 및 리튬 생산 관련 세금 등이 지출 증가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는 GDP 대비 -2.2%(IMF –2.1% 전망)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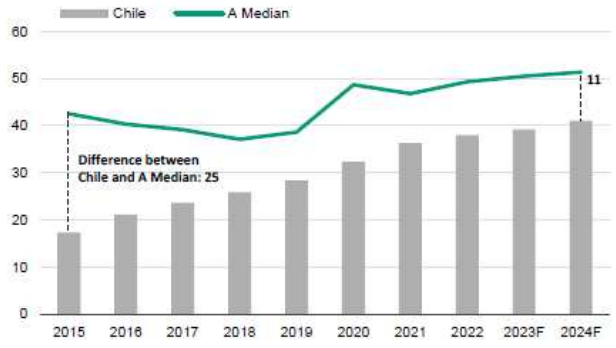
*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IMF) : ('24^{f})-2.1% → ('25^{f})-1.4% → ('26^{f})-0.5% → ('27^{f})-0.3%

[그림 5] 칠레의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



자료: FitchSolutions

[그림 6] 칠레의 GDP 대비 정부부채 추이(%)



자료: Moody'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e
경상수지	-14,505	-4,952	-23,193	-27,102	-11,929
경상수지/GDP	-5.2	-2.0	-7.3	-9.0	-3.5
상품수지	3,016	18,917	10,470	3,807	15,256
상품수출	68,792	74,024	94,774	98,548	95,246
상품수입	65,776	55,108	84,304	94,741	79,990
외환보유액	39,480	37,800	47,128	35,197	42,341
총외채	198,424	209,257	236,457	231,660	232,057
총외채잔액/GDP	71.3	82.3	74.7	77.0	67.4
D.S.R.	35.1	33.9	26.4	34.9	33.0

자료: IMF, EIU

2023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

- 칠레 경제는 구리, 금 등 광물자원 수출이 총수출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로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광산 개발 관련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과실송금 등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0년에는 전년도 하반기의 전국적 소요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상품수입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 증가를 기록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구리 등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경기부양과 함께 상품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7.3%로 확대됨.
- 또한,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9.0%)하였음.
- 2023년에는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상품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전년 대비 크게 개선(GDP대비 -3.5%)됨. 2024년에도 주요 광물자원(구리, 리튬)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IMF는 GDP대비 –3.4%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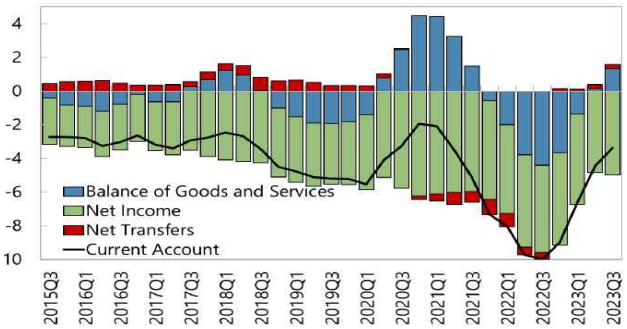
대외거래

[표 1] 칠레의 연간 경상수지 추이(억 달러)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e
상품수지	30.2	189.2	104.7	38.1	152.6
서비스수지	-80.9	-74.7	-123.2	-148.2	-96.3
본원소득수지	-104.1	-158.6	-185.2	-165.2	-184.1
이전소득수지	9.7	-5.4	-28.2	4.3	8.5
경상수지	-145.1	-49.5	-231.9	-271.0	-119.3

자료: IMF, EIU

[그림 7] 칠레의 경상수지 추이(%)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 칠레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1년 74.7%, 2022년 77.0%, 2022년 67.4%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2023년 기준 단기외채잔액이 총외채잔액의 10% 미만으로 추정되어 만기구조가 안정적임(EIU).

- 또한, Moody's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GDP의 45%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칠레가 속한 A 신용등급 국가 평균 대비 정부부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2022년 중 경상수지가 GDP 대비 -9.0%를 기록하며 상품수입 증가와 함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2.8개월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도 증가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3.8개월분으로 개선됨.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세 등은 향후 외환보유액 및 외채상환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 46.7(2019) → 38.0(2020) → 38.9(2021) → 72.7(2022) → 51.4(2023e)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억 달러)(UNCTAD) : 144(2019) → 108(2020) → 132(2021) → 198(2022)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개월) : 4.6(2019) → 5.1(2020) → 4.3(2021) → 2.8(2022) → 3.8(2023e)

- D.S.R.는 지난 5년 간 2021년을 제외하고 33.0~35.1%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1년에는 구리 등 상품수출의 증가로 외채원리금 상환액 대비 총수출액이 증가하면서 26.4%를 기록하였으나, 2022~23년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차입금 상환부담 등이 증가하여 각각 34.9%, 3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 311(2019) → 286(2020) → 293(2021) → 425(2022) → 393(2023e)

경제구조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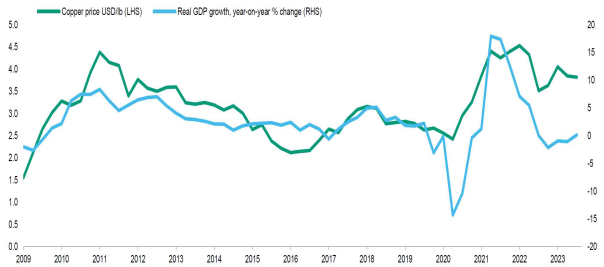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구리 등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경제구조

- 칠레 경제는 구리를 중심으로 하는 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광물자원 수출이 총수출의 약 50%)하고 있어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반면,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부족하고 기계, 전자, 화학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이들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편, 칠레의 광업 부문은 용수 부족, 광석 품질 저하, 지역사회 간 분쟁, 환경영향평가 취득 난항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칠레 정부는 광물 국제가격 하락과 외부환경에 따른 영향을 분산하기 위해 광종 개발의 다각화를 추진 중임(한국광물자원공사, 「칠레 광물 투자가이드」).

[그림 8] 칠레 경제성장률과 구리 가격 연관성



자료: Moody's

[그림 9] 칠레의 총수출 및 GDP 대비 구리 비중

Chile: The Role of Lithium and Copper in the Economy
(In percent)

	2020	2021	2022
Copper			
Exports as share in total goods exports	52.0	55.7	45.3
Exports as share in GDP	15.1	16.7	14.8
Fiscal revenue to GDP	1.2	3.0	2.3
Lithium			
Exports as share in total goods exports	0.8	1.3	8.2
Exports as share in GDP	0.2	0.4	2.7
Fiscal revenue to GDP (rental income)	0.0	0.0	1.0
Mining and quarrying			
Employment share	2.6	2.7	3.1

Sources: Haver, Chilean Ministry of Finance and IMF staff calculations.

자료: IMF

성장잠재력

주요 광물자원(구리, 리튬) 보유로 광산업 개발 잠재력 풍부

- 칠레는 구리, 리튬, 몰리브덴, 아이오딘, 레늄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 리튬, 레늄 등의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임(한국광물자원공사, 「칠레 광물 투자가이드」). 광업은 그 특성상 전력, 용수, 제조, 운송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 창출효과로 인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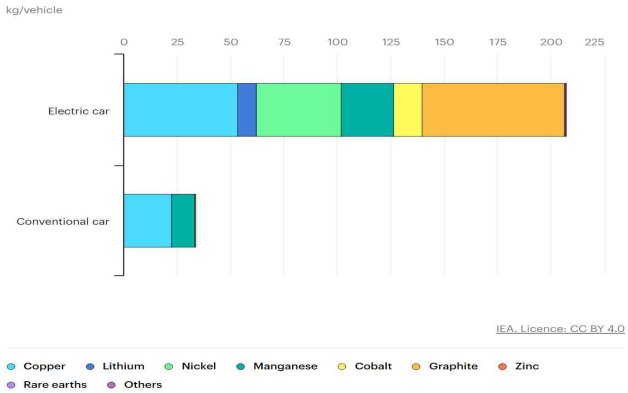
- 미국 지질조사국(USGS, 2022년 기준)에 의하면 칠레의 구리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전 세계 매장량의 21.3% 및 생산량의 23.6%로 세계 1위이며, 리튬 또한 세계 1위의 매장량(35.7%)과 세계 2위의 생산량(30%)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칠레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리와 리튬의 경우, 구리는 친환경 전력생산에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리튬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광산업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보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리튬은 전 세계적으로 40배 이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가량이 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 3개국('리튬 삼각지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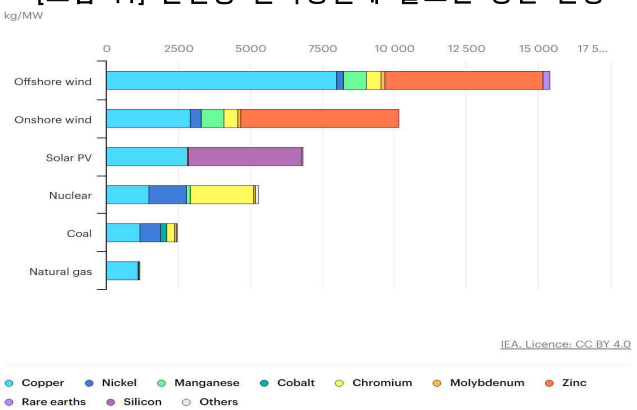
성장잠재력

[그림 10] 차량 종류별 필요 광물 현황



자료: IEA

[그림 11] 친환경 전력생산에 필요한 광물 현황



자료: IEA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지형학적 이점 보유(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50% 이상)

- 칠레는 지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정책적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에 불과하던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이 2022년에는 28%로 증가하였음. 2022년 기준 칠레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5.6%로, 발전원별로는 수력 24.4%, 태양광 17.4%, 풍력 10.7%, 바이오매스 2.3%, 지열 0.6% 등으로 구성(주칠레대사관)되어 있음.

- 칠레는 남북으로 4,300km에 이르는 긴 영토의 다양한 기후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함.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을 자랑하며, 남쪽에는 바람이 풍부하고 화산 지형이 밀집되어 있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2021년 칠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보(KOTRA)' 참조).

- 칠레 정부는 2040년을 끝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완전 중단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IMF는 현재의 석탄화력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전량 대체할 경우 탄소배출 절감 효과 외에도 석탄과 석유 가격 변동성에 따른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최소 1% 이상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칠레 정부는 그린수소 개발에도 노력도 기울여 2020년 11월 칠레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25GW 규모의 전력을 투입하여 1.5달러/kg 가격의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그린수소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Hidrogeno Verde)'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2023년 8월 중남미 최초로 산업용 그린수소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되었으며, 프랑스의 에너지 회사 Engie와 미국의 유통 대기업 Walmart가 1,5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할 계획임. 1단계 프로젝트로 칠리쿠라 유통센터에서 운용하는 200대의 지게차에 들어가는 납축전지를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할 예정임.

정책성과

정부의 리튬 개발 권한 강화를 위한 국가리튬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 발표

- 보리치 대통령은 2023년 4월 이차전지 핵심 광물인 리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칠레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리튬 국영기업 설립,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신규 프로젝트 개발 추진, ▲친환경 리튬 채굴기술 사용, ▲자연 생태계를 위한 염호의 최소 30%를 보호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리튬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를 발표함.

- 칠레 정부는 1979년 리튬을 양도 불가능한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소유권을 국가가 관리하여,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개발 또는 '리튬 생산 특별계약'을 통한 개발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추출 및 판매를 위해서는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할당량을 허가 받아야 함). 이에 따라 현재 칠레의 리튬 시장은 1979년 이전에 광업권을 얻은 칠레생산진흥청(CORFO)과 '리튬 생산 특별계약'을 체결한 SQM(칠레*)과 Albemarle(미국)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임.(KIEP).

  * 2018년 중국 톈지리튬이 SQM의 지분 23.77%를 매입(약 40억 달러)

- 국가리튬전략과 관련해 리튬 국유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전통적인 국유화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정부의 권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 정책이 칠레 리튬 산업의 개발 및 발전 촉진, 정부재정 강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SQM은 국가리튬전략 발표 직후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2025년 칠레 국영동공사(Codelco)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이를 통해 SQM은 아타카마 염호(Salar de Atacama) 리튬 채굴기한을 2060년까지 연장(당초 기한 2030년)하고, 생산 및 판매량 쿼터를 30만톤(현재 칠레 리튬 총생산량의 약 1/3)을 늘림(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 (주요 내용) 합작법인의 지분구조는 칠레동공사 50%+1주, SQM 50%-1주가 될 예정이며, 2기간(2025~30년 및 2031~60년)으로 구분하여 당초 계약 기간인 2030년 까지는 수익의 80%를 SQM이 가져가고 2기부터는 주식 보유량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함.

정치·사회안정

정치안정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30%대의 낮은 지지율로 재선 전망은 비관적

- 2022년 3월 11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가 칠레의 제43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였으며, 임기는 4년 중임제로 2022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임.

- 1986년 2월생인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며, 대학 재학 중이던 2011년 칠레의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운동을 이끌었음. 2019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반정부 사위를 통해 개혁적 좌파 지도자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복지정책 확대를 비롯하여 칠레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불평등 및 빈부격차 해소를 외치며 상대 후보와 달리 반대 진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승리하였음.

- 그러나 보리치 행정부는 2022~23년 중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상승률, 부패 스캔들, 마약 범죄율 증가 등으로 30% 내외의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EIU는 2024년 10월 지역 및 지방선거 및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신헌법 제정이슈는 1·2차 개헌 국민총투표에서 부결되며 잠정 중단

- (신헌법 필요성) 칠레 역사상 처음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19년 10월 발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으나, 그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피노체트 정권(1980~92년)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고, 대규모 시위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신헌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됨.

- (1차 개헌 국민총투표(2022년 9월 4일) : 부결) 진보 편향적이었던 개헌 안은 찬성 38.1%, 반대 61.9%로 부결되었으며, 부결 직후 보리치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개헌을 지속 추진함.

- 원주민 자결권 확대와 양성평등 의무화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폭넓게 담겨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조항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부 진보적 내용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삽입되면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됨(Emerics, 이슈트렌드, '22.9.8자).

- (2차 개헌 국민총투표(2023년 12월 17일) : 부결) 2차 안은 1차 안과 반대로 보수편향적으로 작성되면서 2차 국민총투표에서 찬성 44%, 반대 56%로 개헌이 또다시 무산되었으며, 보리치 대통령도 2차 개헌 국민총투표에서도 부결되면 더 이상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로 개헌 논의는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임.

- 2차 개헌 국민총투표를 위한 개헌위원회(2023년 5월)에 보수 우파가 대거 참여(보수 우파 34석/전체 51석)하면서 오히려 현행 헌법보다 신자유주의 이념과 보수적인 색채가 강화되었고, 2차 개헌안이 칠레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부결된 것으로 보임.

사회안정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낮은 수준이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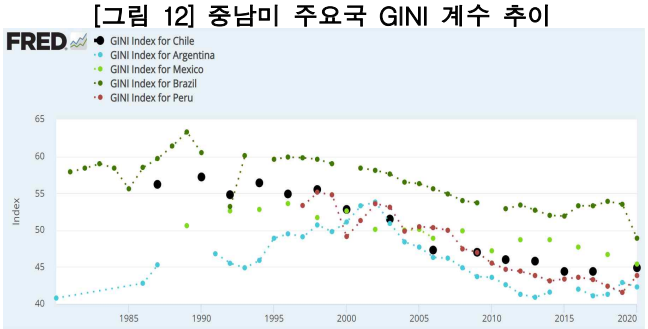
- 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 수년 간 6~7%대를 보여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11.1%로 상승하였으며, 2021~22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어 각각 9.3%, 7.8%를 기록하였음(World Bank). 한편, 2023년 실업률은 8.8%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28년에는 7%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IMF).

- 빈곤율의 경우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0.8%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중남미 국가 중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World Bank).

  * 칠레 빈곤율(인구대비) 추이: ('09)25.3% → ('11)22.2% → ('13)14.4% → ('15)11.7% → ('17)8.6% → ('2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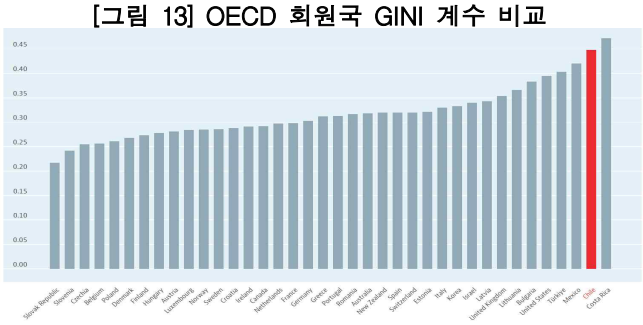
-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GINI계수의 경우 칠레는 2020년 기준 0.449으로 중남미 주요국과 비교하면 브라질, 멕시코보다 양호하고 페루, 아르헨티나보다 조금 뒤지는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코스타리카(0.487), 멕시코(0.420)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World Bank).

[그림 12] 중남미 주요국 GINI 계수 추이



자료: FRED

[그림 13] OECD 회원국 GINI 계수 비교



자료: OECD

증가하는 마약 관련 강력범죄와 정부의 억제 노력

- 2022년 5월 1일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노동자의 날 기념 대규모 행사에서 마약 갱단 간 총격전이 벌어져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한편, 2022년 11월에는 산티아고의 한 경찰서 인근에서 괴한들이 시민들을 향해 자동화 무기를 난사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Americas Quarterly(2023.5.8.)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강력범죄 비율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범죄가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억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한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원인으로 마약 조직의 활동 범위가 특정 국가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국제화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음. 이에 2022년 4월 브라질 정부는 마약 조직이 주축이 된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남미 정부 간 공조 체계를 제안한 바 있음(Emerics, 이슈트렌드, '22.6.10자).

- 다만, 칠레는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 중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은 편에 속함. 2021년 기준 칠레의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3.6명으로 콜롬비아(27.5명), 멕시코(28.2명)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임(World Bank).

사회안정

- 보리치 대통령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첫 대국민 TV 연설에서 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기 소유를 강력히 제재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한편, 작년 2023년 12월에는 산티아고의 한 주조공장에서 최근 경찰이 압수하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약 2만 5천여 정의 총기류를 공개적으로 폐기하였음.

남부 마푸체 지역 원주민의 무력시위 지속

- 마푸체족은 남아메리카 칠레 중남부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방에 걸쳐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정부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으며, 2022년에는 칠레 남부 아라우까니아(Araucania) 지역에서 마푸체족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발전하자 보리치 대통령이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을 긴급 투입하기도 하였음.

- 칠레 내의 여러 원주민 집단 가운데 가장 큰 약 170만 명(칠레 인구의 약 9%)에 달하는 마푸체 원주민은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장과 산림을 정부가 강제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반환과 이들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며 정부 공권력에 대해 간헐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으로 평가

- Moody's[1]는 ESG 요소가 칠레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2023년 11월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저지대 해안가 침수와 가뭄, 사막화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청정연료를 사용한 운송,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사회)** 칠레의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위생·보건·교육 등 분야 등 복지 확대, 합리적인 교통·주택 비용, 높은 연금 지급 등에 대한 요구는 때로는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배구조)** 신뢰성 있는 거시경제정책과 비교적 투명한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으로 칠레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1) Moody's Investors Service, Government of Chile – November 2023

국제관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

- 칠레는 중남미에서 경제가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 전 세계 GDP의 88%를 차지하는 65개 경제권을 포함하는 30여 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FTA 체결 국가: 한국, 미국, 중국, EFTA,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터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 칠레는 한국(2003년), 미국(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칠레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내 첫 번째 FTA 체결국이며,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칠레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자 제10위의 수입상대국임.

  * 수출상대국 순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브라질, 멕시코, 네덜란드, 페루, 인도, 볼리비아
  수입상대국 순위: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일본, 스페인, 페루, 멕시코, 한국

- 2023년 한국의 대 칠레 상품수출액은 12.5억 달러, 상품수입액은 75.7억 달러를 기록하며 63.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2022년에는 52.9억 달러)가 발생한 바, 이는 배터리 생산의 필수적 소재인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의 수입량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적자 폭이 확대된 것임. 우리나라는 칠레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기계류 등을 수출하며, 칠레로부터 구리, 리튬, 목재제품, 포도주, 육류 등을 수입함.

- 칠레는 또한 중남미 내에서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2012년)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중남미 총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도모, 회원국 간 균형적인 경제성장 도모, 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가 2022년 1월 준회원국(태평양동맹과 양자 FTA 체결을 의미)으로 가입하였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준회원국 가입 교섭을 진행 중이며, 에콰도르는 정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임.

- 한편, 칠레는 1998년부터 APEC 포럼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는 등 중남미 지역을 넘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11개국

국제신인도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칠레는 OECD 회원국이자 A~A- 수준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19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 당시를 포함하여 파리클럽과 총 5번의 채무재조정(총 11.5억 달러)을 실시한 바 있으나, 2024년 2월 현재 채무재조정 잔액은 전액 상환한 상태임.

- 한편, 미 수은, 독일 Hermes, 영국 UKEF 등 주요 ECA들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 모두 원칙적으로 인수 가능하며, 영국 UKEF의 경우에는 중장기 자금에 대해 현지화 인수도 취급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 (고소득국)	미평가 (고소득국)
Moody's	A2 (2022.09)	A1 (2018.07)
Fitch	A- (2020.10)	A (2017.08)

중남미 국가로는 두 번째로 OECD에 가입

- 칠레는 1994년 멕시코에 이어 2010년 중남미 국가로는 두 번째로, 남미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에 해당하여 별도의 OECD 등급은 없음.

* 이후 중남미 가입국: 콜롬비아(2018년), 코스타리카(2021년)

2019년 시위 사태 이후 국제신용평가 3사는 칠레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Fitch(2020년 10월)는 2019년 대정부 시위로 거세진 정부지출 확대 요구와 팬데믹 대응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로 정부부채 규모가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칠레에 대한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2022년 9월)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2019년 대정부 시위 등에 따른 정부지출 압력의 증가, 헌법 개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을 지적하며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함.

종합의견

- 칠레는 정부의 친시장 정책기조, 중앙은행 등 경제부처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 운용 등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 내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도를 유지해왔음.
- 2023년 높은 인플레이션, 정책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0.5%의 부진한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 안정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정부의 신헌법제정 불확실성 해소(2023년 12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칠레는 광업 부문(구리, 리튬 등)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인해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변동 등에 의해 경상수지와 재정수입 규모가 좌우되고 있음. 다만, 정부의 채무부담이 낮은 편이고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위험은 제한적임. 반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 최근 증가하는 범죄율 등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